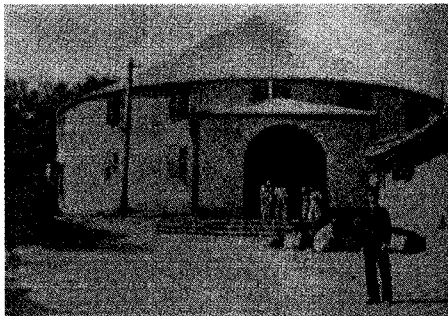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 아빠가 은행 금고라면...



필자 부친이 아코디언치는 모습(1971년 수학여행)



최초극장 원각사 - 1908년에 협률사 자리에 세워졌다.

큰 딸이 “음악(뉴에이지 연주, 작곡)을 하겠다.” 했을 때 고민이 생겼다. 교회에서 지휘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던 부친은 내 밑으로 3명의 여동생을 음악공부를 시켜 이 중 2명이 중학교 음악선생이 되었고 한명은 개인레슨을 해 신문기자인 남편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30년전 중학교 선생의 박봉으로 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부친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과외지도를 해야했다.

최근TV를 통해 필자에게 익숙치 않은 다양한 공연문화가 소개되어지고 고전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점이 명료하지 않은 새로운 장르가 음악 뿐 아니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시도 되어지며 이것이 대중의 호응으로 새로운 스타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된다.

한국의 현대적인 공연문화는 매스미디어인 방송이 등장한 이후이다.

1927년 경성방송이 무선송신을 시작한 이후 “유행가”의 탄생과 함께 “유행가수”라는 스타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했고 이들이 당시 번창했던 극장에서 필름을 갈아 끼우는 막간에 이들이 공연하곤 했었다. 이보다 앞서 극장(공연장)은 1902년 고종 등극 4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명창을 위시하여 내노라 하는 예인을

모아 “협률사”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연장을 세웠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5일장이 서는 지방장시에서는 남사당, 판소리 끈 등이 흥행을 목적으로 전국을 떠돌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보수적인 지식계층에서 이것을 보는 시각은 이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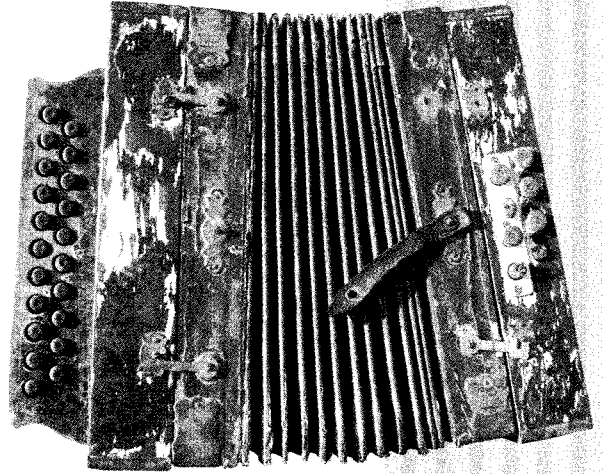
무엇을 열어가지고 동당거리는 소리에 귀는 쓰고 아무 것도 하는 것은 볼 수 없더니 일시 지나서 소북을 잡는 삼사명이 나오더니 다리를 들고 도라가면서 두손으로 소북을 높푸락 나즈락하는 모양이 가소치도 안코 가책할 것도 없는 중에 무삼 노래라고는 하는 모양인데 한참 고아내면서 지지괴는 가운데 노래 곡조는 알아 들을 수 없어 곁에 앉은 사람다려 물은 즉 경봉가, 사거리, 방아타령이라 하는데...

얇전히 앉은 웬 기생 한명이 또한 잡타령으로 창부를 비견진퇴하는 음허 뿐이오, 또 좀 있다가 하는 놀음은 춘향이와 이도령이 서로 작별하는 때에 하는 모양 참 남녀 관람자의 회음(음란한 것을 가르치는)할 자료가 될 뿐이라.

- 1909년 서북학회 월보 -연극장 주인에게-

펼치는 부친의 희생을 보아왔기에 과연 내가 아버지 같이?

주희야! 니가 좋아해서 음악하는 것은 좋은데 돈 안되는 것(밤벌이)은 하지마라.



20년대 아코디언



20년대 방송 수신기 (조선방송협회 보급형호)